

“단 하루의 복직도 안 된다”

콜텍지회, 박영호 사장과 직접교섭 결렬... 임재춘 조합원 무기한 단식 돌입, 전국 규모 동조 단식단 조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노사 교섭이 결렬됐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3년을 거리에서 투쟁하다 정년을 앞둔 콜텍지회 임재춘 조합원이 결국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13년 만에 처음 교섭장에 얼굴을 내민 콜텍 박영호 사장은 사과도 복직도 모두 거부했다. 대법원이 정당한 정리해고라 판결했으니 불만 있으면 대법원에 가서 따지라고 했다. 13년을 기다린 박영호 사장은 해고노동자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콜텍지회와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3월 1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 긴급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와 공대위는 “임재춘 조합원의 단식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진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이라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해고자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

콜텍지회는 지난 3월 7일, 박영호 사장이 직접 나온 지난 8차 교섭에서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을 요구했다. 박영호 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밟은 정리해고이므로 사과할 이유가 없다. 단 하루의 복직도 안 된다”라고 대답했다.

박영호 사장은 국내 공장 재가동 시 희망자를 우선 채용하라는 요구에 “국내 공장을 가동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했다. 해



고 기간 정당한 보상 요구에 “2007년 희망 퇴직자 기준 보상 외 불가”를 반복했다.

이인근 콜텍지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박영호 사장은 진전된 안을 가지고 직접 교섭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8차 교섭 역시 대리인을 내세웠던 이전 교섭과 다르지 않았다.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임재춘 조합원이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라며 비통해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어제 광주에서 본 전두환의 뻔뻔함과 박영호의 뻔뻔함은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박영호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의 도구를 빼앗아 고통에 빠뜨렸다. 사법 농단 재판거대로 밝혀진 대법원판결을 핑계로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한다”라며 분노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투쟁 발언에서 “임재춘 조합원 혼자 단식하게 두지 않겠다. 전국 규모의 동조 단식을 조직해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모든 수단을 다해 콜텍 자본이 전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전국 규모 동조 단식 조직한다”

2007년 해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막내가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했다는 김경봉 조합원은 울먹이며 “정년이 되기 전에 정리해고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박영호는 모욕했다. 박영호 사장에게 노동자는 한낱 기계요, 노예일 뿐이다”라며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결의했다.

오랜 거리 생활에 지친 몸으로 마지막 투쟁에 나선 임재춘 조합원은 “박영호 같은 자는 명품 기타를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 자격도 없다”라고 일갈했다. 임재춘 조합원은 “열심히 투쟁하겠다”라는 짧은 한마디로 끝을 알 수 없는 ‘무기한 단식’ 1일차를 시작했다.

지회와 공대위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해 콜텍 자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우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동조 단식 외 전국 규모 동조 단식단과 문재인 정부의 콜텍 정리해고 사태 해결 촉구 대표단 등을 구성해 활동한다.

지회와 공대위는 국제 행동으로 ▲201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악기 전시회(세계 3대 악기쇼)에서 #NoCort 캠페인 추진(4월 2일-5일 개최) ▲콜트기타 해외 판매처에 #NoCort 캠페인 전개 ▲세계 유명 기타 기업 미국 펜더와 영국 맨슨사에 콜텍 정리해고 진상을 알리고 사태 해결 촉구하는 세계 음악인과 단체가 연서명한 서한 전달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기 위해 소복 입었다”

서울지부, 꽃샘추위 속에 투쟁사업장 순회투쟁 벌여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자식을 빼앗긴 어머니들은 소복을 입고 투쟁에 나섰다. 사악한 정권을 내쫓았다는 촛불 정부 아래서 악덕 업주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여성 노동자들이 소복을 입고 투쟁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고용 참사에 맞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는 의미”로 소복을 입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3월 13일 ‘성진씨에스, 레이테크, 신영프래시전 순회투쟁’을 벌였다. 꽃샘추위와 사나운 강풍 속에 소복을 입은 여성 노동자들은 원청사인 LG전자와 코오롱글로벌을 찾아 원청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청에 임태수 사장 처벌을 촉구했다.

정찬희 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대회사에서 LG전자의 이중성을 폭로했다. 정찬희 부지부장은 “착한 기업으로 포장한 LG전자는 하청업체 노조를 내버려 두면 원청까지 불뚱이 튕가 두려워 신영프래시전 청산을 사실상 결정했다”라고 폭로했다.

최진숙 신영프래시전분회 조합원은 투쟁사에서 “신창석 회장은 노조가 골프장 말고 시설과 기술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더니 노조를 없애려고 위장청산했다”라며 청산 철회와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정영희 성진씨에스 분회장은 “지렁



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며, 노조 만 들었다고 물량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코오롱글로벌을 규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남희자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조직부장은 임태수 사장이 조합원들을 모욕하는 문자를 하루에 열 통 넘게 보냈다고 폭로하며 노동부가 임태수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신영프래시전분회, 성진씨에스분회,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여성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있는 게 어디냐며 최저임금을 받으며 10년, 20년 묵묵히 일만 했다. 이 회사들은 여성 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덕분에 성장했다.

LG전자 1차 하청업체인 신영프래시전 신창석 회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이익으로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골프장 사업에 퍼부었다. 2017년 처음 적자가 났다. 회사는 곧바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결

을 내리자 누적 순이익 1,400억 원, 순 자산만 700억 원인 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여성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코오롱글로벌에 자동차 시트 커버를 납품하는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은 화장실 다녀올 시간을 아껴가며 재봉틀을 돌렸다. 손가락

뼈가 휘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회사는 수당을 삭감하고 기본급은 동결했다. 비용을 절감한다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하고 폐업했다. 노조파괴를 노린 명백한 위장폐업이다.

사무용품을 만드는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의 폭언 폭행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포장부 여성 노동자들을 영업부로 강제 발령한 인사는 부당배치라고 판정하고 임태수 사장 본인을 징계하라는 ‘셀프 징계’ 명령을 내린 게 전부다. 임태수 사장은 임금 체납도 모자라 지난 2월 22일 여성 노동자들에게 ‘경영상 이유’라며 해고 예고통지를 보냈다. 레이테크의 경영 위기 원인은 임태수 사장이다.

이날 순회투쟁 상징의식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레이테크 임태수 사장이 보낸 해고 예고 통지서를 찢어서 공중에 뿌렸다.